

6일부터 29일 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는 '몸에서 우주까지'전은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미래에 대한 제안을 실물과 모형, 영상으로 제시하는 재미있는 전시다.

미래 의식주는?

예술의 전당 '몸에서 우주까지'展



◇'시소벤치'는 우연한 장소에서 시소처럼 움직이는 벤치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동유럽 11국 디자인 50점 출품

느끼면서 먹는 새로운 개념의 도자기
시소벤치·접으면 2인용 의자로 변신

지난 5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 'European Ways of Life'에 소개된 작품들 중에서 유럽의 최신 경향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생활의 주제에 따라 구성한 것이다. 각 프로젝트는 의식주(衣食住)에 관련된 새로운 제안, 가구와 소품, 실내공간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전자 기기와 운송수단, 인터랙티브(interactive) 디자인 등을 다루고 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 동유럽 국가까지 유럽 11개국 디자인 전공 대학생과 젊은 디자이너들의 상상력 반짝이는 작품들은 공생·공존하는 우주적 존재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에서 문득 우리를 놀라게 한다.

'느끼면서 먹기(Eating with feeling)'는 도자기 세트의 이름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식습관이 변화해 온 것처럼 그것을 담아 먹는 그릇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도를 표현하는 작품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음식을 바라보고 그 향기와 맛을 음미하라는 뜻이 디자인 속에 내포되어 있다.

벤치와 시소를 결합한 '시소 벤치(The Teeter Bench)'는 기본전환과 여가시간을 공생이라는 개념으로 이

해한 작품이다. 시소처럼 움직이는 벤치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돌이 하나이자 전체인 공생의 진리를 우연한 장소인 벤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카마르(kamar)'는 사람들이 짧거나 긴 시간동안 물 안과 물 밖 세상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끝이 없는 거대한 물 위에 떠다니면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이 짧은 시각에서 놓치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 작품은 친근한 것과 낯선 것들 사이의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일인용 좌석에서 이인용 좌석으로 마음대로 변화가 가능한 의자인 '하나 속의 둘(Two in One)'은 개인성과 사회성과의 커뮤니티 선을 의미하는 작품이며, '스크린(The Screen)'은 세상을 감지하기 위해 우리가 몸을 어떻게 쓰는 지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자전거와 같은 기계를 이용해 관객이 직접 육체와 스크린의 상호작용을 통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재의 유럽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활환경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에서부터 우주로 확장되는 역동적인 대안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02580-1538)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차 문화와 역사, 만들고 마시는 법 등 다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하는 차 관련 대학원 전문 강좌가 신설되는 등 우리 전통 차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특수대학원)은 이번 학기부터

茶道 체계화

다도(한·중·일 전통 다도야카데미 최고전문가 과정)를 개설한다. 비록 대학원의 특별과정이라는 하나, 학문으로서 '차' 문화를 바라보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의는 차 문화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사람은 물론 지도자급 차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다도

교양과 철학,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의 차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무산스님(경덕선원 주지, 한국 다산학회 회주)을 비롯, 김숙희씨(경희대 세라믹디자인 전공, 일본 다도 요천가 불심암

최고명인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차문화원 강사는 일차다례과정·말차다례과정·사법과정으로 나누어 일반인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시 지정 궁중다례의식보유자인무형문

한중일 전통다도 최고 전문가 과정

경희대 특별대학원 명원 다도대학원

교수 다인·최고 명인 두과정 나눠 교육

차 전수 등이 강의한다.(031)201-2166-7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 신하 명원다도대학원과 명원차문화원도 9월 둘째 주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대학원과정은 전문 사법 이상을 대상으로 교수다인과정과

화재 김의정 이사장을 비롯, 명원다례전수관 고세연 관장 등이 직접 지도한다. 또 명원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삼창각 전통다례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 문화 강의를 실시한다.(02)742-7190-1

지신민민·청중 시로잡는 입담 여전

김용욱 교수 EBS-TV '도올, 인도를 만나다' 첫 녹화

도올이 다시 TV로 돌아왔다. 노장 사상, 논어에 이어 이번에는 불교를 강의한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리랑TV 지하 4층 D스튜디오에서 열린 EBS-TV, 도올 인도를 만나다' 첫 녹화에서 만난 도올(54·前 고려대학교수)의 모습은 여전했다. 자신만만한 어투, 청중을 사로잡는 특유의 입담 등 예전과 변한 것이 없었다.

첫 강의는 그가 30여년간의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나갔다가 다시 무대에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초 인도 보드 가야에서 열린 칼라차크라 큰 불교행사때 달라이라마를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 저리 탁~ 했어요 바로 전기가 통한 거예요. 달라이라마가 날 보더니 전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이란 시간을 내 주더군요. 우리는 인류의 수 많은 문제에 대해 끝없이 얘기를 나눴어요" 끝이어서 입보와 운화에 대한 설



◇불교의 핵심사상인 '입보'와 '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도올 김용욱 교수.

불교에선 어떤 경우는 '운명' 거론 안해

비판 개의치 않고 소신껏 강의에 최선을

명이 이어졌다. "얼마전 내 병원에 30대 초반의 여자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 놓는다. 한 스님에게 결혼할 남자의 사주를 봤는데 함께 살면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스님이야 개새끼지." 도올의 직설화법에

까르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어 그는 말을 이어 나갔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전부 출몰하기 때문에 사주나 궁합 따위를 보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것들을 보는 스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님이 아니라, 불교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런 운명론적인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1시간 남지 된 첫 강의는 그가 미리 준비해 온 우리민족이 지나야 할 문화적,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연설문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방청은 김천석(39, 서울 구로구 구로동)씨는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이 많아 방청하게 됐다"며 "어려운 철학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도올의 강의에 매력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도올'은 8월 29일 밤 10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총 28회) 매주 목·금요일마다 50분간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 jami@buddhapa.com

이정미 씨 '...마음의 풍경'展



◇이정미 작 '실상사'.

문화 소식

십여 년 동안 실경을 스케치하며 전국의 산과 강, 그리고 절을 화폭에 담은 화가 이정미씨의 두 번째 개인전 '구름 따라 흐르는 마음의 풍경-선(禪)과 시(詩)가 있는 그림' 전

이 4일~16일 서울 조흥갤러리에서 열린다.

총의대와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이씨는 전시에서 불도사, 송광사, 백양사, 실상사, 금산사, 흥국사, 봉암사, 연주암 등을 집하고 느낀 감흥을 운치 있는 수묵담채화로 담았다.(02)722-8493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다가, 빌딩 옆 작은 화단에서 붉게 핀 꽃머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불현듯이 지난 겨울에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 생각났다. 개심사 연못 위에 서있는 배롱나무(백일홍)를 보고, 여름에 다시 와서 빨간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리라고 다짐했던 것이다. 개심사에 전화를 했더니, 어느 보살님이 받는다. "지금 연못 위 백일홍이 활짝 피었습니까?" "예, 백중이 지났으니 지금 한창이지요."

다음날 일찍 서산으로 향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풀려서 서울에서 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개심사 입구에 닿았다. 선선한 아침기운을 받으며 계곡 어귀에 서니, 개울 옆에 선 <개심사 입구(開心寺入口)>와 <세심동(洗心洞)>의 두 멋드러진 표석이 반가이 맞아준다. 세심동 소나무 숲에 들어서서 들계단을 밟는 순간, 나는 이곳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수정원> 개념을 구현한 본보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굽은 길가의 소나무 줄기를 달은 이 원만한 휘어진 들계단 길은 최대한 자연을 닮고 최소한의 인공을 가미하는 전통정원의 조성원리에 그대로 부합하였다. 그리고 보니, 세심동 입구에서 대웅전 뒤 산신각까지 개심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심사의 '백일홍'

지난겨울 약속 생각나 전화 "연못위 백일홍 피었습니까" "백중지나 지금 한창이지요"

한국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까지 가자언고 어디서 부터 정원인지 구분 이 되지 않는다. 사심이다. 대표적인 민간정원인 담양 소재원이나 보길도 부용동은 물론이고, 왕실정원인 창덕궁 비원조차 정원과 숲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이 점은 호수를 파고 산을 쌓아올리는 중국의 인공적 경관이나, 구획이 명확한 일본의 직위적 정원과도 확연히 다르다. 중국의 정원은 석가산(石鼓山)을 쌓고 태오석(太湖石)을 배치하여 마치 '연극무대' 같이 꾸미는 분경식(盆景式) 정원이고, 일본의 정원은 화폭에 구도를 잡듯 경물(景物)을 배치하여 객관적으로 감상하는 '그림' 같은 정원들이다. 반면 우리의 정원은 화장을 한 듯만 듯 자연이 넘치는 미인이며, 또한 그 정원은 사람에게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 거니는 공간이다.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인사하고, 산신각 뒤 숲일터미에 앉아 아레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를 듣는다. 선경이 따로 없다. 모든 것이 자연정원이며, 눈길 닿는 것은 모두 인간의 심정적 소유물이 되어 <인문경관>으로 화한다. 건너편 언덕 위에 있는 바위는 마치 마름볼처럼 보인다. 그것은 '경치를 빌려오는' 차경(借景)이라는 전통정원 조성원리를 연상시킨다. 한국의 정원은 안과 밖의 경계를 엄격히 구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장 밖의 경치'를 소중히 여기고 정원의 연장선으로 삼았다. 이렇게 경치를 빌려오는 정치로 사찰이건 서원이건 일반 가정집이건 앞마당은 대개 비워두어서 시선을 시원하게 했다. 그리고 꽃과 나무를 심을 때는 대개 뒤뜰에다 가꾸었다. 이것은 배산임수의 지형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백일홍 꽃잎이 연못 위에 떨어진다. 이 아름다움의 힘으로 다음 백중 때까지는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

■문학평론가

慶州南山

세계문화 유산,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원류
그 방대한 자료를 완전을 컬러 특대판형 전2권으로 간행



■ 朝鮮日報

'신라 역사박물관' 경주 남산의 모든 것이 책, '경주남산'은 말 그대로 경주 남산의 모든 것을 담은 야심적이고 우직함 기회의 결과이다. 도판면과 해설면 중 2권의 책은 어린이들은 들지도 못할 만큼 무겁다. 그 무게는 그대로 신라 천년의 역사가 갖는 무게로 느껴진다. 140쪽에 이르는 질터, 80여 구의 불상, 90여 기의 석탑, 13기의 향로, 4개의 산성, 중요문화재 사진과 탁본 실측자료 등 무려 800여 점이 실렸다.

■ 중앙일보

'골마다 불상·석탑은 산이 짙어오다' 4년여 현장조사 '경주 남산'완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p.go.kr)가 지난 4년간 조사를 맡았으며, 그 결과가 '경주 남산'(15만권)이란 책으로 최종 정리해 최근 출간했다. 4년간 2백여 차례 현장 조사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문화재는 모두 6백 72건. 절터는 1백47개소. 일제시대 조사 결과의 두 배나 되며, 골짜기마다 2곳 이상의 절이 들어서 있었던 셈이다. 돌로 만든 부처와 보살상은 1백 7구, 석탑은 모두 96기.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향로와 비석 등을 찾아냈다.

■ 동아일보

남산의 불교유적을 비롯해 선사유적, 신라왕릉, 고려·조선시대 유적과 유물,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산지역에서 행해지는 민속의례, 남산의 수려한 자연유산 등을 모두 담았다. 도판면·해설면 2권으로, 특대판형 총 700여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 다. 5년간 200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물의 결과이다.

■ 釜山日報

'세계 문화유산' 남산의 모든 것 2권에 오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종합 도록은 관련 학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일반인들에게도 보다 쉽고 친절하게 남산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보신문

'한국불교 원류 한 권으로 응축' 이번에 발간한 종합도록은 지난 98년 경주 지역에 대한 5개년 정비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된 남산 정비사업의 결과물이다. 사진만을 모은 도판면은 지난 2000년도 호주 케이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전체 회의에 자료로 제공돼 남산을 포함한 경주 일대가 경주역사유적지구로 묶여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佛敎新聞

'경주 남산이 책갈피에 '속'-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신라의 영산이며, 우리 민족의 성소인 경주 남산이 책속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으며 골짜기마다 간직한 신라인의 불심(佛心)과 예술혼을 책은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 현대불교

'골마다 절터, 바위엔 불보살'- 경주 남산은 우리 나라 미술사학계의 대부 고유섭이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고자 한다면 경주 남산에 가 보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나라 불교 문화유산의 보고다.